

장애인올림픽 선수단 오찬

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정말 장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테네에서 땀 흘리고 있는 동안 전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. 우리 언론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.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국민 모두가 감동했습니다. 여러분 욕심엔 성적이 모라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했습니다.

더 잘한 이유는 누구와 싸워 꺾고 이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 피나는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 가는 자기와의 투쟁이 더 장하게 보였습니다.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큰 성과지만 국민에게 여러분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훈련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이 언론과 여러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.

모든 국민들이 우리 장애인들이 참 잘했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준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.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. 우리가 미처 배려가 부족했구나, 진작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. 여기에 계신 임원단, 장애인단체 책임자, 보건복지부 장관 다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. 저도 비슷합니다. 여러분이 연습할 때 만나고 이걸 아니구나 싶었는데, 아테네

갈 때 불편했던 것, 지나고 나니 늦었지만 미안합니다.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.

메달을 딴 사람, 메달을 땀으나 부족한 분, 메달을 놓친 분들도 다 노력을 같이 한 것 아니냐. 그러나 사람 욕심이 메달을 따고 싶죠. 2008년 올림픽 때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땀 흘려 준비합시다. 우리 김근태 장관님도 각 별히 지원하구요,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. 같이 합시다. 감사합니다.